

54  
55  
朝鮮王朝實錄

(조선왕조실록)

흔히 말하는 李朝實錄 (이조실록) 이다

조선 왕조 실록은 전체 3대 실록의 하나를  
뭉치며 중국 의 明 (명) 이니 淸 (청)

나라가 실록이 많지만 각각 250~300

년 정도에 불과 하다 고려 실록이 있다

고려 하나 실전 (先傳) 된 상태 이다

조선 왕조 실록은 1971년 12월 27일 국

사 편찬 위원회에서 영인 축소판으로

제작이 된 것이다

이 시록은 명초 1,500여 권을 생각까지

해서 49권으로 압축 인쇄한 것이다

조선왕조 실록은 正史(정사)로 아내지

만 역사 편찬의 가장 유력한 자료라

할 수 있다

이 시록이 왕실(포술)의 비사(秘史)로

다가 아내고 학술 연구의 자료로서 공개

된 것은 1910년 이후의 일이다

신록 공개의 제2판 제는 1930~32년 사

이 7 京城帝國大學 (경성제국대학) 법문

하부가 사진 총해판은 30부 만들어

당시 일본이 국공립대학 도서관에 104

본인 인이 있다

제3판 제는 1946년 신록의 보급판 출판

은 427 부였는데 京城帝國大學 (경성제국대)

인관과 영인본은 구분지나 크기로 축소

해해 宋版(국판) 크기로 해한 宋版<sup>2</sup>

(태종) 신록 26권까지 완료를 했을 때 6.25

전쟁이 히리 종단 되었다  
 전 평정 시대 (京城帝代)의 교수였으며  
 이조서록 연구의 제1인자로 알려진  
 宋松保和 (스기 마쓰) 씨는 해방 후 일본으  
 로 돌아가 興賢院 (흥현원) 원장으로 재직시  
 동양 문화 연구소 이사로 睿朝實錄  
 (이조서록) 등 수백권의 인쇄 하에 당시 총  
 承曉 (이승환) 대 동령에게 총 사 용하고  
 인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아무런 후답이  
 없지는 않기 롱 < 善道史草 (선도사초) > 라는  
 조선의역사

20x10

이르면 책에서 · 박헌바 있다 그후 末  
 松 (스에바쓰) 교수는 자기 친구가 毛澤東을  
 만났더니 간담기에 예기를 했더니 毛澤東  
 東 (모택동)이가 200 자를 쓴 詩가 주어 출판  
 비록 물었다는 예기도 뒷부치고 있다  
 詩자는 1970년대 초 작고한 전 동아일보  
 주필 李寬宇 (천관우) 씨에게 이 조서록을  
 읽은 순간에 이 책을 하면 되는구나 뜻  
 하니 李氏로 李氏 읽지 마라고만 한  
 일제하에 우리나리 李氏 (사가) 두분이 쓴

